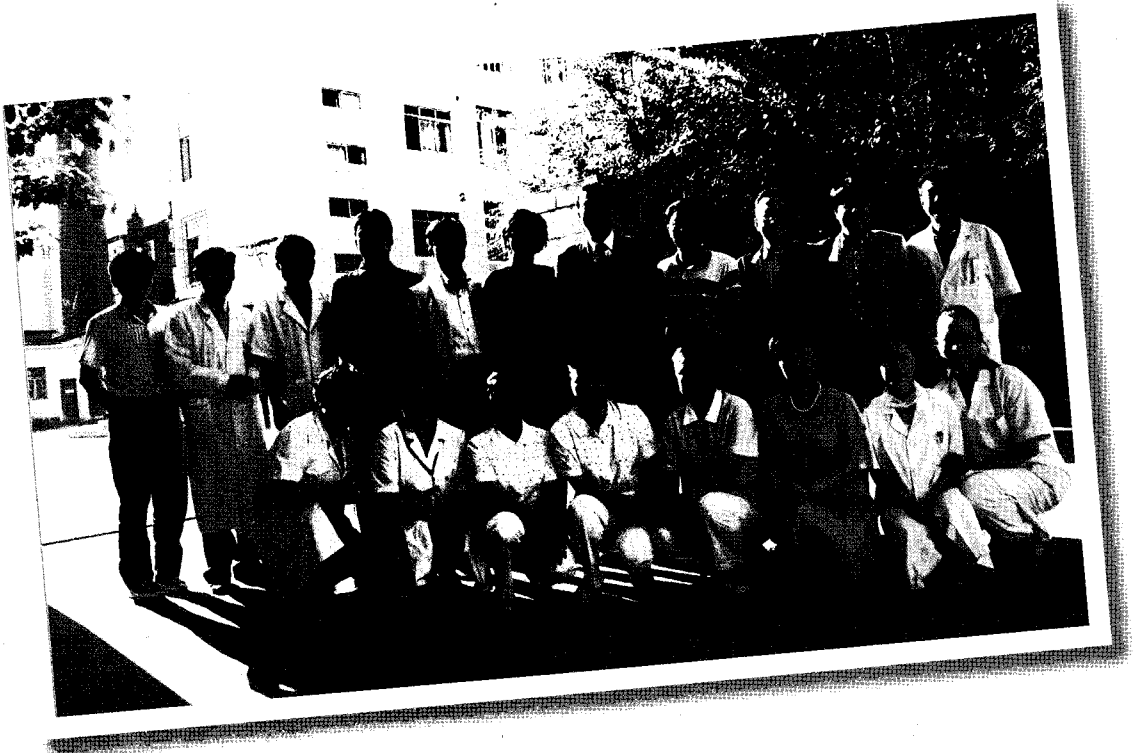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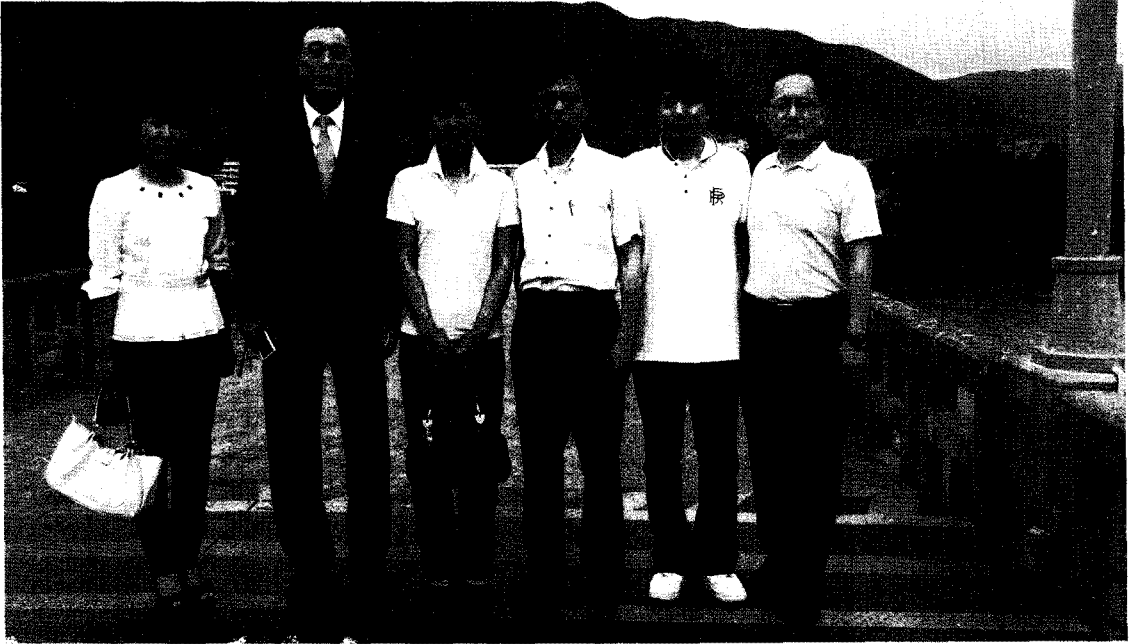


글과 사진, 박용혁 본부 기획예산과

# 연변 결핵병방치소 방문기

연길. 그곳을 생각하면 우선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정서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이다. 조선족이라는 민족의 전통, 혼, 얼과 말을 계속 간직해 오고 있는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대표적 인 곳이다.





문영목 회장님, 안진기 과장님, 이원재 선생님과 본인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지난 7월 25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였다. 연길공항에 도착하여 출구를 빠져나오니 연변결핵병방치소 김덕복 소장님 외 직원들이 마중나와 계셨다. 직접 공항까지 나와주시니 낯선 이국땅에 가족들이라도 만난 것만큼이나 기뻐다. 날씨는 한여름인 서울보다는 선선하고 바람까지 간간히 불어오니 기분까지 상쾌하다.

곧바로 숙소로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침 일찍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걸 아신걸까? 사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긴 했다. 곧바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한 곳은 전주비빔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는데 우리네 비빔밥과 중국음식을 함께 맛볼 수가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달리는 차안에서 우리 일행은 여행의 피로도 잊은채 창밖으로 처음 접하는 연길시내와 사람들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쳐다본다.

반듯 반듯하고 넓은 도로에 자동차도 사람도 붐빈다. 신호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낯설다. 건물목도 없이 사람들은 그냥 차도를 건너다닌다. 위험해 보이지만 사람도 차도 그런 질서에 익숙한 듯 예상롭다. 뺑뺑거리는 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서둘러 건너는 기색이 아니다. 아주 복잡한 네거리엔 간혹 신호등이 있는데 20초 30초 역순으로 꺾뺑 거리다가 시간이 다하면 바뀌는 것이 신기하고 낯선 것을 빼면 그냥 우리네 시골도시를 연상케 한다.

우리가 3박 4일 머물게 될 연길국제호텔에 여장을 풀고 첫째날 공식일정인 연변결핵병방치소를 방문하였다. 입구부터 20~30명의 방치소 직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기념 사진도 찍으며 환영해 주니 웬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진다.

4층 건물의 결핵병방치소는 길림성 연변자치주안의 대표적인 결핵전문치료기관으로 인근 도문, 훈



춘, 용정 등의 결핵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입원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내부견학을 간단히 마치고 김소장님으로부터 연변자치주의 현황, 환자치료 및 관리,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협회와의 차이점과 지원방안들을 함께 논의 하였다. 방치소 방문을 끝으로 우리 일행은 숙소로 돌아와 연변에서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우리는 아침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김소장님과 백두산(白頭山)으로 (여기서는 다들 장백산이라 불렀지만 나는 백두산이라 부를 것이다. 우리 민족의 산 백두산을 차마 장백산이라 부를 수 없다는 나의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향했다.

시간거리 5시간! 끝없이 이어지는 왕복1.5차선 비포장 도로! 그나마 주변에 보이는 것은 그냥 나무 숲 뿐이다. 그런데 우리 농촌처럼 빈집이 자주 눈에 띈

다. 지붕위에 풀이 무성한 집들도 여기저기 보인다. 빈집들이 왜 이리 많은지 물어보니 “연변도 큰일이 났어요. 많은 여자들이 한국으로 돈벌이를 떠나 남편들이나 아이들만 집을 지키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가정집들이 깨지고 개판 나는 경우도 많아요.”라고 조금은 과장된 어투로 묘사한다. 이곳 연변은 여자가 기근이라한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조선족(韓族)인구가 주는 경향이어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도 한다. 인구가 줄면 자치주(自治州)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달려 백두산 입구에 도착. 평소 김소장님과 친분이 있으신 백두산 관리소장의 배려 덕분에 우리일행은 전용 지프차로 편안히(?) 백두산 천지까지 이동할 수가 있었다. (원래는 우리 일행도 일반 관광객들과 함께 단체 버스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시멘트 포장 등산로 입구엔 차를 기다리는 중

국사람, 한국 사람들로 북적인다. 최근 백두산을 찾는 관광등산객은 하루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600여명은 한국인이고 나머지는 중국인이며, 기타 외국인은 간혹 1~2명 눈에 띄는 정도라고.....

지프차는 그 명성 그대로 짜릿함을 선사하였다. 좁은 왕복2차선 산비탈 도로에서 최대한의 난폭운전을 하였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왕복하는 그네들이야 문제없지만 처음 타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의 운전 실력이 경이롭기까지 하였다. 약15분 정도 차를 타고 산등성을 올라가니 봉우리가 보이는 넓은 들판이 보였다. 봉우리 등반까지 10분 정도 걸으니 천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다행히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봉우리에 오르면 파란 천지를 내려다 볼 수 있었다. 한여



결핵을 치료하려는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켠엔 어느새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는 동료애가 싹트는 걸 느낀다.



름임에도 강풍이 불었고 봉우리 옆은 바로 낭떠러지가 이어지는 산세였다. 천지를 중심으로 남쪽 반원은 북한, 북쪽 반원은 중국으로 국경이 형성되어 있었다. 산등성을 따라 북한에 간다 한들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위에서 천지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저 물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소망이 더욱 간절해진다. 기념사진을 정신없이 찍어댔다. 약 2시간 천지 관람 후 짜릿함을 주는 지프차를 다시 타고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80km/h를 유지하는 실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안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렇게 백두산 관광을 마치고 셋째날 우리는 훈춘시, 도문시, 룡정시 결핵병방치소를 방문하여 한국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고 시설들을 견학하였다. 대부분의 건물 및 장비들이 우리나라



에 비해 낙후되어 있지만 결핵을 치료하려는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엔 어느새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는 동료애가 싹트는 걸 느낀다. 이어서 우리는 도문시에 있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인 다리를 방문하였다. 다리위에 북한은 파란색, 중국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게 인상적이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 반도와 대륙을 잇는 다리 뒤에는 기차가 다니는 철교로서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할 때 이용하는 다리도 보인다. 두 나라의 사이가 좋으니 철조망도 없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웬지 모를 부러움이.....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이루는 두만강가에 서서 강 건너를 보니 절로 “두마~안~강 푸른물에 노젓는 배~옛 사~~공”하는 구슬픈 곡조와 가사가 나도 모르게 입에 맴돈다.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동으

이번 연변 방문은 국가를 떠나 같은 민족으로서 정겨움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여행이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며왔다.



로는 두만강, 서쪽으로는 압록강, 북쪽으로는 송화강으로 흐른다고 한다.

맨 먼저 북한 땅이 궁금하여 무조건 북한 땅이 잘 보이는 곳으로 위치를 잡고 얼른 사진기를 꺼냈다. 가능한 많은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찰칵~~ 그런데... 사진 촬영금지라 써있다. 그 이후 나의 가슴은 새가슴이 되었다.

조심스러운 사진 촬영은 이어지고 겁이 무지 나지만, 이렇게 가까이 북한 땅을 볼 수 있다는 이상야릇한 기분을 만끽한다.

멀리서나마 북한 들녘을 본 걸로 만족하며 우리는 다음 일정지인 룡정시로 아쉬운 발걸음을 돌린다. 도문에서 차로 한 30분 가량 가다 길거리에서 참외를 파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 참외를 샀다. 본인은 처음 보는 종인데 문영목 회장님께서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먹었던 개구리참외란다. 보기에는 호박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어보니 당도가 높아 맛있었다.

룡정을 지나가다 가곡 '선구자'에 나오는 일송정과 해란강을 잠시 들렀다.

우리민족에게 룡정은 단순한 지명으로서의 룡정일 뿐만 아니라 일제의 탄압이 심해질 무렵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청년들이 모여 독립의 꿈을 품고 몸과 마음을 닦았던 곳이며 특히 일송정은 당시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의 거처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일송정 아래에서 모임을 갖고 독립을 이야기하고 투쟁할 방법을 논의했던 곳이라 한다. 비록 지금의 소나무는 노래 선구자 속에 나온 일송정이 아니라 새로 심은 소나무이지만 이곳에 올라서서 보면 해란강과 만주 별판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우리의 독립 투사들이 이곳 만주별판에서 일제에 항거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또다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우리는 연길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보냈다.

이튿날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맘이 무거워진다. 이른 아침부터 호텔까지 연변결핵 병방치소 직원분들께서 배웅을 나와 계셨다. 그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연변 방문은 국가를 떠나 같은 민족으로서 정겨움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 준 여행이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저며왔다.

끝으로 함께 동행하신 문영목 회장님, 안진기 과장님, 이원재 선생님과 더불어 3박 4일간 우리를 손님이기보다는 가족으로 대해주신 김덕복 소장님 이하 방치소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